

‘2019 광주’ 역대 최대 규모 지구촌 수영 축제 열린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한달여를 앞둔 10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이 내부 마감 공사와 함께 부대시설 공사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한 달 앞으로

세계인의 수영축제인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 3·21면> 대회 개막 31일을 앞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96개국 선수들이 참가 등록 신청을 마친데다 엔트리 마감일(6월12일)까지 추가 등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 점검과 함께 선수들과 관객들의 안전·수송·숙박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가국 역대 최대 규모...막판 북한 참가 주목>=10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196개국 5600여명이 대회 참가 등록을 마쳤다. 이는 전 대회인 17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최대 200여 국가 참가 ... 북한 선수단 참가 여부 최대 관심
선수촌·경기장 공사 마무리, 입장권 목표 대비 41% 판매
총 6개 종목 17일 간 열전 펼쳐·마스터즈 8월 5~18일 열려

대회의 참가국 177개국을 이미 넘어섰고, 앞선 16회 러시아 카잔 대회 참가국 184개국도 넘어선 기록이다. 조직위는 참가국 엔트리 마감일이 오는 12일인 만큼 추가 참가국 등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대 200여개 국가의 참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 선수단 참가가 마지막까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 관례상 엔트리 마감일이 지난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한데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북한 선수단의 참가 비용과 중계권을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개막일 전까지 북한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선수촌·경기장 공사 마무리...인력 등 실전 배치>=광주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건립한 선수촌은 지난 4월 건립이 완료됐고, 내부 마감 공사와 함께 편의

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까지 마무리됐다. 오는 20일 미디어촌 2개 동을 개촌하고 다음달 5일 공식 개촌할 예정이다. 경기장 시설의 경우도 주 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의 공정률이 94.4%, 수구 경기장이 열리는 남부대 종합운동장 94.4%, 아티스틱 종목이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이 9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이드라이빙이 열리는 조선대 축구장은 93.4%의 공정률을, ‘오픈워터’ 수영 경기장인 여수엑스포 해양공원도 60.0%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오는 20일까지 5개 주요 경기장이 모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선수촌과 경기장 등에 해당 부서의 인력과 물자 등을 배치하고 실전 체제로 전환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특히 국제수영연맹(FINA) 임원 등이 20일부터 입국을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다. 숙박과 식음료 서비스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한편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 인근 도시를 관광할 수 있는 버스투어 등의 관광 상품 준비도 마쳤다. 기업과 단체들의 입장권 단체 구매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5일 기준으로 판매 목표량 36만9000매 대비 15만매(41%)가 판매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조직위 관계자는 “수영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친환경, 문화, 저비용·고효율 등 조 아래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6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참가 선수들은 총 6개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수영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은 자유형, 배영 등 특정한 수영법으로 42개의 메달을 따기 위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다이빙은 스프링보드, 플랫폼 등 총 13개의 세부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도움단기, 높이, 입수 자세 등 기술적인 면과 미적 요소까지 종합적인 점수로 메달이 정해지게 된다. ‘수중 핸드볼’로 불리는 수구는 대회에서 유일한 단체경기로 진행되며, 아티스틱 수영은 음악에 따라 아름다운 안무를 연기해 총 9개 메달의 주인공을 가리게 된다. 하이드라이빙은 수영대회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예술적인 종목으로 꼽힌다. 남자는 27m 여자는 20m 높이에서 각각 경기가 진행된다. ‘물속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 수영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열리며, 실외에서 장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한 종목이다.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는 7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총 17일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며,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는 8월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로켓포를 쏘더라도 때려라” 31사단장이 출동명령 내렸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 전두환 재판서 자료 공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수만(88)씨의 형사 재판에서 5·18 당시 31사단장이 ‘로켓포를 쏘더라도 때려라’고 명령한 기록이 공개됐다. <관련 기사 6면> 10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 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4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뒷길에서 헬기 사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목격했다”는 증언과 함께 무력 진압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의 수기 자료도 공개했다. 5·18 이후 계엄군이 작성한 수기에는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께 육군 31사단장이 505항공대 소속 500MD 무장헬기 조종사를 호출해 ‘로켓포를 쏘더라도 때려라’며 출동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담겨있다. 정 전 회장은 육군 1항공여단 상환일지,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보급지원현황 자료 등을 통해 본인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5·18 당시 광주기동병원 간호조무사 실습생이었던 최모 씨 등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6명이 증인으로 나서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헝가리 참가 유람선 오늘 인양

유해 일부 국내 운구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이 10일 끝나고 11일 오전부터 실제 인양이 이뤄진다. <관련 기사 2면>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지휘관인 송순근 주헝가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대령)은 10일 헝가리 브리핑에서 “4개 본 와이어 중 어찌까지 2번 빼고 1, 3, 4번이 다 배 밑을 통과해 결속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령은 “오늘 2번까지 다 배 밑을 통과하면 크레인에 걸 수 있도록 하는 준비까지 최대한 마칠 것이다. 만약 이게 다 되면 실제 인양 시점은 내일 오전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2번 와이어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송 대령은 “돌이나 콘크리트 조각

등으로 분와이어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50t 유람선인 허블레아니호는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에 들이받힌 뒤 불과 7초만에 침몰했다. 이 배에는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7명은 구조됐지만 7명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7명이다. 헝가리인 선장도 실종 상태에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되면서 일부 사망자의 시신은 화장한 뒤 10일 국내로 운구되는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 헝가리 구조당국은 10일에도 헬리콥터 3대를 투입해 공중 수색을 계속하고 수상 수색도 남쪽으로 50km 지점까지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 64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 16·17면

2020 최저임금 광주 공청회 ▶ 7면
오늘, 잠 못드는 축구의 밤 ▶ 20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벽 차단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해외 여행을 다녀올 때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을 가져오거나,
국제 우편을 통해 들여오지 말아 주세요.

해외여행 후 불법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월 1일부터).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현지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마시고,
귀국 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주세요.



양돈 농가에서는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삼가해 주세요.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제우편 등으로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잘 알려주세요.

돼지가 고열·폐사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주세요.

☎ 신고 전화 1588-9060/1588-406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사람은 감염되지 않음)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여 발생 시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초래됩니다. 현재 예방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